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7년 12월 19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 3701-7377

이메일:communications@asaninst.org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한국 사람 만들기 2』 출간 - '친일개화파'의 등장과 몰락-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한국 사람 만들기 Ⅱ』를 출간했다. 지난 9월 펴낸 1권을 통해 '한국 사람'의 정체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다섯 가지 담론 중 '친중위정척사파' 담론을 탐구한 저자는, 2권에서 '친일개화파' 담론을 소개한다.

'친일개화파'란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일본을 근대 문명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보고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 만들기 Ⅱ』는 근대 문명을 조선에 이식하고자 했던 친일개화파의 계보를 추적하며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근대화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함 원장은 "'친중위정척사파'와 흥선대원군, 조선의 왕실은 근대 문명을 금수와 같은 서양 오랑캐의 것으로 치부하고 거부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조선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던 청은 여전히 중국의 유교 문명이 우월하다는 '중체서용론'을 견지했다"며 "조선이 근대 문명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문명개화'의 이름으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고 있던 일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람 만들기』는 '조선 사람'이 해체되고 '한국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정치적, 지정학적, 이념적 요소들을 다섯 가지 담론의 틀로 망라한 인문학 시리즈다. 제3권 '친미기독교파'는 2018년 발간될 예정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한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다.